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 뉴스 시민 삶의 질과 관광객의 호응 얻은 '농부시장'
문화·관광 피렌체시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캠페인
산업·경제 청년 실업을 개선을 위한 파리의 청년 고용 지원 사업

사회·복지 초고령사회 대비하여 요양 서비스 인력 지원책 제시

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 위해 설탕 소비 감소 유도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아메리카〉	
<u>미국</u>	
매디슨·시카고	조민서
샌프란시스코	송태수
시카고	강기향
포틀랜드	김규리
	김현철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u>캐나다</u>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u>케냐</u>	
나이로비	한 울
〈오세아니아〉	
<u>오스트레일리아</u>	
시드니	황현정

〈아시아〉	
<u>말레이시아</u>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u>싱가포르</u>	
싱가포르	이지은
<u>인도</u>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u>인도네시아</u>	
자카르타	박재현
<u>일본</u>	
도야마	서유환
도쿄	김영준
<u>중국</u>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유럽〉	
<u>네덜란드</u>	
암스테르담	장한빛
<u>독일</u>	
베를린	홍남명
슈투트가르트	정윤주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u>스페인</u>	
바르셀로나	진광선
<u>이탈리아</u>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u>프랑스</u>	
파리	김나래
	정연주

시민 삶의 질과 관광객의 호응 얻은 ‘농부시장’

이탈리아 피렌체시 / 문화·관광

피렌체시는 피렌체 농부들의 경제 활동을 돕고 시민의 건강한 식문화를 책임지는 농부시장을 적극 지원하며 확대하는 정책을 세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관광객을 매료시킬 새로운 관광 정책으로 주목받음

배경과 목적

- 피렌체에서 농부시장(I Mercati Contadini_Farmers Market)의 중요성
 -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농부시장은 농산물의 생산자와 그 지역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장터임
 - 최대한 짧은 공급 과정(Filiera Corta: Short supply chain)과 생산-소비 사이의 제로 킬로미터(0km) 가치를 실현하는 환경 및 식문화 정책
 - 이탈리아에서는 시장이 보통 도시의 주요 광장에서 매일 혹은 주말에 열림
 - 농부와 시민과 도시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중요한 문화
 - 생산자에게는 판매의 기회,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먹거리 제공, 도시에서는 전통 식문화를 유지하고 시민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로서의 역할
 - 피렌체시는 누구나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일상 문화로 농부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하고 이를 확대·연장하여 적극 지원
 - 시민의 사랑을 받는 농부시장이 관광객까지 매료시키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이 관광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됨

주요 내용

- 피렌체시는 다양한 농산물 업체, 농부, 수공예 기관들과 협업하여 농부시장을 적극 지원
 - 야채, 과일, 곡물 등 제철 식재료와 올리브오일, 와인, 꿀 등 토산품(local product)을 생산 지역의 피아자(Piazza)라고 불리는 시민 광장에서 판매
 - 최소 15종의 식재료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등 규모가 큰 피렌체 역사지구의 장터에는 더 많은 농부가 참여
 - 매일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리는 매일 장터와 주말에만 열리는 주말 장터 운영

- 피렌체시는 시민의 호응에 힘입어 주말 장터를 금요일에도 여는 정책을 시행
- 시민의 수요가 넘쳐남에 따라 잘 알려지지 않은 구석진 광장에서도 작은 규모의 농부시장이 새롭게 개장
 - 농부들에게 더 많은 판매 기회를 주고 작은 구역의 시민들도 신선한 식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의 정책
 - 인적이 뜸한 구역과 공간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적 영향력을 기대
 - 농부들의 공급 사정에 따라 매일 여는 장터를 시행하려는 노력
-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여 참여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수공예협회, 농부협회, 올리브오일 및 와인협회와 협업
 - 기본적인 식재료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한 재료로 만든 천연 비누, 천연 화장품 등 다채로운 상품들을 제공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피렌체 시민들이 꼽는 가장 중요한 피렌체시의 정책 중 하나
 -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이며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 공모전에서 농부시장의 확대와 발전이 중요 주제로 꼽힘
 - 피렌체시는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시장 발굴뿐 아니라 기존 농부시장의 확대와 시간 연장을 위해 노력 중
 - 농부시장에 참여하는 농부들에게 기존 세금의 50%를 감면하는 정책을 펼쳐 생산자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

정책 평가와 의의

-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정책으로 피렌체시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책 중 하나
- 광장이라는 이미 존재하는 공간에 의미를 더해 새로운 경험과 문화를 창출
- 어린 세대들이 음식과 식문화와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 효과
-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진정한 이탈리아의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져 자연스럽게 진정한 관광 경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https://www.comune.fi.it/comunicati-stampa/mercati-contadini-nel-cuore-della-citta-tanti-con-prodotti-chilometro-zero>

<https://www.comune.fi.it/comunicati-stampa/firenze-insolita-2021-partenza-31-nuovi-progetti-di-promozione-della-citta>

<https://www.lafierucola.org/lafierucola>

<https://www.comune.fi.it/comunicati-stampa/firenze-km-zero-piazza-tasso-arriva-il-mercato-contadino-dell'associazione>

<https://www.comune.fi.it/comunicati-stampa/torna-piazza-indipendenza-il-mercato-contadino-chilometri-zero-campagna-amica>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피렌체시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캠페인

이탈리아 피렌체시 / 문화·관광

피렌체시는 매년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위기에 처함. 과잉 관광의 부작용 속에서 도시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지향하기 위해 방문객들에게 행동 지침을 권고하는 관광 캠페인 <엔조이 앤 리스펙 피렌체(Enjoy&Respect Firenze)> 전개

배경과 목적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피렌체시의 노력
 - 인구 30만 명의 작은 도시인 피렌체시는 르네상스 문화의 탄생지로 1982년부터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한 해 관광객이 평균 900만 명에 이룸 - 과잉 관광(overtourism)으로 도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어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
 - 매년 관광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무책임한 방문객 비율도 함께 높아지는 현상 발생 - 문화재 훼손, 도시 환경 파괴, 시민의 일상에 불편을 주는 행위 등 크고 작은 범죄 발생
 - 시 차원에서 관광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켜야 할 필요성 대두
 - 피렌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제안하고 권고하는 형태로 <엔조이 앤 리스펙 피렌체> 캠페인 전개

주요 내용

- 피렌체시와 피렌체 관광재단 공동 프로젝트
 - 도시의 본래 모습을 지키고 관광객에게 최대한 만족스러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료하고 간단한 지침들을 방문객에게 제안하는 형태의 캠페인
- <엔조이 앤 리스펙 피렌체> 캠페인 내용
 - 피렌체 도시 거주자들을 존중
 - 피렌체시가 관광지로서 매력적인 이유는 도시를 유지하고 있는 시민들 덕분임을 상기시키고, 시민들이 일상을 잘 지내도록 배려하는 것이 피렌체시를 위한 길임을 관광객들에게 알림

- 피렌체시에는 상업지구와 거주지역이 공존해 있기에 밤에 소음을 자제할 것을 당부
- 피렌체시에 머무는 동안 피렌체 시민들의 옷차림을 참고하여 따라줄 것을 권고. 해변용 슬리퍼, 노출이 심한 옷들을 착용한 외국인들에게 도시, 특히 성당을 방문할 때 품위 있는 차림에 신경 써 줄 것을 권고
-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등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 이용 장려
 - 피렌체시의 역사지구 크기는 약 5km²이며, 충분히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관광 명소들이 모여 있음
 - 피렌체시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Firenzeinbici)를 자유롭게 이용하길 권장. 아르노강을 따라 약 120km의 자전거 도로가 있으며 자전거 지도를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도시에서 공항까지 트램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시 외곽에 주차한 뒤에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역사지구 진입 권고
- 예술 장인 문화, 전통 음식 등 피렌체의 고유문화를 제대로 경험하도록 제안
 - 피렌체 문화의 핵심인 수공예 공방과 작품을 즐기길 제안. 가죽, 도자기, 종이, 식물 공예 등 예술작품부터 패션, 가구, 약국, 음식점 등 일상 상점이 예술 공방 형태로 유지되는 도시 문화를 직접 경험하길 제안
 - 피렌체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것뿐 아니라 유명한 이탈리아 문학에서 등장한 음식 문화, 주민들이 가는 시장 정보를 공유하며 관광객들이 피렌체에 머무는 동안 진짜 피렌체 미식을 즐길 수 있도록 도움
- 깨끗한 도시 유지를 위한 권고
 - 도시 벽에 낙서, 그래피티(길거리 그림) 절대 금지
 - 분수대 안에 들어가거나 동상에 올라타는 행위, 강에서 수영, 길거리 취식 등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관광객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늘어나면서 기본적인 관광 매너를 일깨워야 하는 상황
 - 관광객들이 버린 길거리 쓰레기 처리를 위해 피렌체 시민들의 환경미화 자원봉사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 스마트한 여행을 위한 팁
 - 피렌체시에서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도록 목적지 도착 전 미리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
 -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나고 특정한 관광 명소에 군중이 몰리기 때문에 피렌체시는 방문객의 만족도를 위해 다양한 여행 정보와 루트를 고안

- 박물관 패키지 카드와 대기 없는 예약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들이 기다림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움
- 덜 알려진 박물관, 미술관, 숨겨진 명소를 소개함으로써 군중을 따라 하는 여행이 아닌 각자 기호에 맞는 여행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제안. 시의 입장에서는 관광객을 분산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

○ 캠페인 스타일

- 피렌체의 상징이자 역사적인 인물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단테, 다비드, 메디치가문의 인물을 그래픽으로 재탄생시켜 피렌체시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임명. 그들이 관광객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형태로 캠페인 진행
- 피렌체시와 관광 관련 공식 홈페이지의 소개, 전광판, 포스터 홍보는 물론 소셜미디어 해시태그(#EnjoyRespectFirenze)로 전파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

<https://www.comune.fi.it/dalle-redazioni/enjoy-respect-firenze>

<https://enjoyrespectfirenze.it/>

<https://www.comune.fi.it/comunicati-stampa/turismo-sostenibile-torna-enjoyrespectfirenze-con-la-nuova-campagna-di>

<https://www.guidaviaggi.it/2024/06/05/enjoy-respect-firenze/>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청년 실업률 개선을 위한 파리시의 청년 고용 지원 사업

프랑스 파리시 / 산업·경제

파리시는 기존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젊은 세대의 실업률을 개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발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사회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

사업 개요

- 2023년 기준 프랑스 전체 실업률은 7.3퍼센트이며 그 중 경제활동인구 기준 15세에서 24세까지의 젊은 세대 실업률은 17.2퍼센트임
- 젊은 세대는 사회 경험이나 업무 경험이 없어 구직 시 불리한 상황. 더구나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지식이 없는 중퇴자나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움
- 파리시는 일자리 수요가 있고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과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무료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
- 특히 젊은이들이 접근하기 유리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웹, IT 분야에서의 취업 지원을 특화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또한 여성의 IT 분야 진출 비율이 30퍼센트에 불과한 것에 착안, 여성 인재 양성도 노력 중

주요 내용

- 두 번째 기회 학교(l'Ecole seconde chance de Paris) 설립
 - 두 번째 기회 학교는 2007년 파리시가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 지역정부, 지역상공회의소와 장인·공예협회 등의 관련 기관, 지역 기업들이 협력하여 설립
 - 대상: 16세에서 25세 청년들(장애인의 경우 30세까지 가능)로 공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했거나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 없는 이들
 - 목표: 직업을 갖는 것, 스스로 유용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

- 교육 단계: 교육 프로그램의 이해 → 직업 특성 이해 과정(인턴 과정 및 기술 습득) → 직업 결정 및 직장인의 자세 습득 → 구직 교육(언어교육, 인터뷰 준비, 문서작성 등) → 과정 이후(과정 후 1년간 지속 관리)
 - 교육 과정: 창업가 과정(6개월), 제과 과정(4개월), 건설 과정(6개월), 수리기사 과정(3개월), 행사안전요원 과정(3개월), 디지털전문가 과정(6개월), 요양간호사 과정(6개월)으로 구성
 - 교육 과정 외에도 연극, 문화활동, 시민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신감을 증진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됨
 - 모든 과정을 마친 후 기술습득인정서(Attestation de Compétences Acquisés) 발급
 - 교육 장소: 서민 거주 지역인 18구, 19구에 있으며, 2024년 13구에 추가 설치
 - 성과: 교육 과정 후 상급학교 또는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77퍼센트로 나타남. 100여 개의 회사에서 이 학교를 통해 고용하였으며 2022년 기준 465명이 인턴 과정을 거침
- 파리 코드(Pariscode) 프로그램 진행
 - 파리 코드는 2016년 파리시에서 시작한 웹 개발자 양성 교육 및 고용 촉진 프로그램
 - 대상: 웹 관련 자격증이 없고 웹 관련으로 진로를 바꾸려는 다른 분야 종사자 또는 최근 학위를 마쳤으나 웹 관련으로 진로를 바꾸려는 이들. 별도의 나이 제한 없음
 - 교육 내용: 모바일·웹 개발 또는 테스트,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디지털 마케팅 및 E 커머스, 디지털 사업·제품 관리
 - 교육 과정: 3~4개월의 단기교육 후 실무와 교육을 겸하는 과정과 6~12개월의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구분하여 진행
 - 파트너 기업(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시스코, 오렌지 등)에서 교육을 지원하고 인턴 과정을 통해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교육기업에 따라 교육인증서도 발급
 - 성과: 지난 8년간 만 명 정도가 교육과 인턴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교육받은 이들의 70퍼센트 이상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관련 회사에 근무하게 됨
 - 파리 웹아카데미(Paris Web@cadémie) 활성화
 - 파리 웹아카데미는 2010년 시작되었으며 2016년 이후 여성 인력 양성에 집중하여 현재는 학생의 약 80퍼센트가 여성
 - 대상: 18세에서 25세 이하의 청년들
 - 교육 과정: 총 24개월 과정으로 IT 전문 교육기관(Epitech; European Institute de Technology)에서 기술 교육을 받으며 관련 회사에서 14개월 동안 인턴 과정을 병행하게 됨

- 교육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IT 교육을 받는 기간(3주)이 있으며 이 기간에 에피테크(Epitech)의 석사 과정 학생이 선생이 되어 학생이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
- 성과: 85개의 파트너 기업에서 적어도 1~2명이 인턴으로 근무 중.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고용 기회를 늘림. 학생 중 70퍼센트 이상이 상급학교 진학 또는 구직에 성공

시사점

- 젊은 세대의 실업은 장기적인 사회 문제를 일으킬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인식함
- 정부의 역할은 기존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고 사회가 이들을 포용하도록 돕는 데에 있음
- 젊은 세대에게 관심이 높고 고용의 기회가 많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관련 기업과 구직을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음
- 파리지의 교육기관, 관련 기업, NGO 등 지역 네트워크와 재정지원 등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 산업, 사회 모든 범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

<https://e2c-paris.fr/>

https://injep.fr/tableau_bord/les-chiffres-cles-de-la-jeunesse-2023-activite-emploi-chomage/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4805248>

<https://www.paris.fr/pages/aides-a-l-emploi-2344>

<https://www.paris.fr/pages/la-femme-est-l-avenir-du-code-a-la-web-cademie-5140>

<https://www.paris.fr/pages/le-soutien-de-la-ville-a-l-emploi-6417>

<https://www.paris.fr/pages/se-former-aux-metiers-du-numerique-avec-pariscod-5831>

정연주 통신원, yonjoo1004@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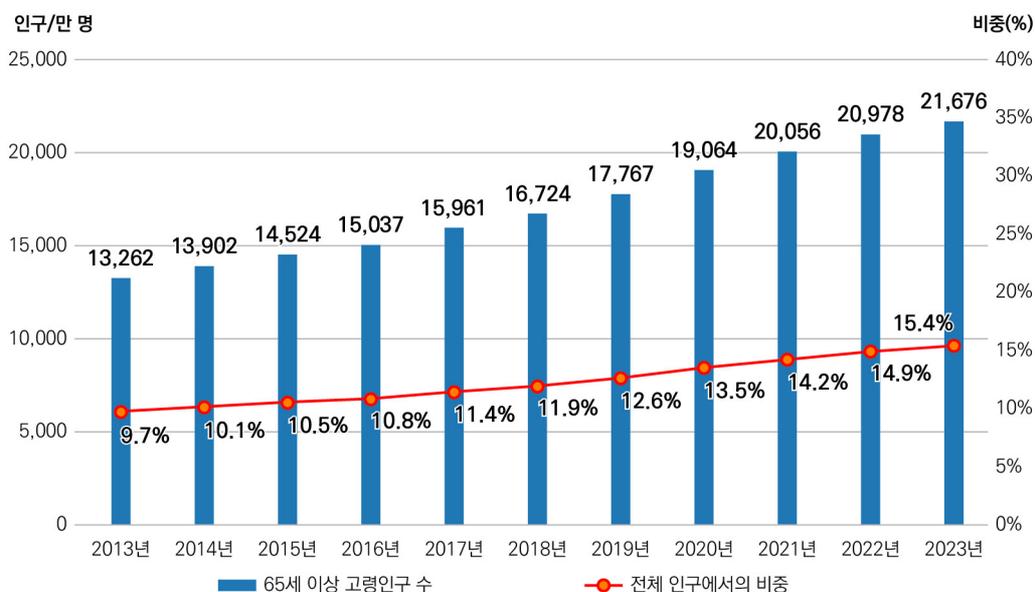
초고령사회 대비하여 요양 서비스 인력 지원책 제시

중국 충칭시 / 사회·복지

충칭시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18.9%를 넘어서며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런 현실을 직시해서 충칭시 정부는 2029년까지 요양 서비스 인력을 새로이 3만 명까지 양성하겠다는 계획 발표. 또한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직업기술 등급시스템을 도입. 이를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을 요양 서비스 인력으로 유인하기 위한 직위 등급을 마련하고, 입사 후 3년이 지나면 일회성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 제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중국

- 10월 중국 중앙부처인 민정부는 전국노령공작위원회와 함께 《2023년도 국가노령사회 발전공보(國家老齡社會發展公報)》를 발표
 - 《2023년도 국가노령사회 발전공보》에 따르면, 2023년 말 중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억 1,676만 명으로 전체 인구 14억 970만 명 중에서 15.4%를 차지
 - 중국은 2021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는 2030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 2023년 중국 1인당 GDP가 1만 2,614달러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중국은 선진국이 되기 이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 버리는(未富先老)' 국가가 됨
 -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 상황은 《2023년도 베이징시 노령사업 발전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2023년 말 베이징시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46만 명으로 전체 인구 2,185만 명 중에서 15.9%를 차지함
 - 베이징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최근 4년 동안 0.8~0.9%씩 증가했기에 2028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림] 중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와 전체 인구에서의 비중 추이 (출처: 《2023년도 국가노령사회 발전공보》)

- 중국 4대 직할시¹⁾ 중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도시는 내륙에 자리 잡은 충칭시
 - 2023년 말 충칭시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603만 명으로 전체 인구 3,191만 명 중에서 18.9%를 차지. 따라서 충칭시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
 - 충칭시의 고령인구 비중은 중국 31개 이상의 지방정부 중에서 랴오닝(遼寧)성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대규모 요양 서비스 인력 양성방안

-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2024년 11월 5일 충칭시 정부는 「양로서비스 인력 구축강화 실시방안(加强养老服务人才队伍建设实施方案, 이하 ‘실시방안’)」을 발표하여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여 요양 서비스 인력을 대대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
 - ‘실시방안’의 핵심은 시정부 차원에서 2027년에는 새로이 2만 5,000명의 요양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고, 2029년에는 3만 명까지 양성하겠다는 계획
 - 2027년까지 시 전역에 요양 서비스 인력훈련기지 10곳을 새로 건설하여 인력 양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1) 중국 내 직할시는 4개로 베이징시, 상하이(上海)시, 톈진(天津)시, 충칭시

- 단순히 인력 양성에만 그치지 않고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신8급 직공(新八級工)’이라는 직업기술 등급시스템을 도입
 - 인력훈련기지에서 수강하는 훈련생부터 양로 서비스 관련 자격증에 합격한 사람까지 요양 서비스 종사자를 초급직공, 중급직공, 고급직공, 기사, 고급기사, 특급기사, 수석기사 등까지 8단계로 나누어 임금과 인센티브에서 차등을 둠
 - 전문적·객관적 직위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요양 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하려는 포석임
- ‘실시방안’에서는 고등학교와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을 요양 서비스 인력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책도 제시
 - 일부 구(區)정부는 이미 관할 요양 서비스 기관과 센터에 입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입사 후 3년이 지나면,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는 1만 위안(약 193만 원)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고등학교와 2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는 5,000위안(약 96만 원)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지급함
 - 입사 청년은 공공기관의 인력으로 일자리의 안정성을 보장받고, 직업기술 등급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노력 여부에 따라 직위 등급을 상승시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https://www.cqcb.com/yukuaibao/2024-11-07/5694292_pc.html

http://mzj.cq.gov.cn/zwgk_218/zfxxgkml/zcjd/wzjd/202411/t20241105_13772325.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812426806887468740>

https://www.cq.gov.cn/zwgk/zfxxgkml/zdlyxxgk/yfww/yfzx/202410/t20241011_13698297.html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국민건강증진 위해 설탕 소비 감소 유도

말레이시아 / 사회·복지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24년 5월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 시민들 활동을 비롯해 설탕세 인상안, 가당 음료 영양 등급제, 설탕 보조금 폐지 등 각종 조치로 설탕 소비 감소를 유도

정책 배경

- 동남아시아 최대 비만 국가
 - 성인 10명 중 5명은 과체중
 - 2023년 말레이시아 국가 건강 및 질병 발병률 조사(NHMS)의 과체중/비만 유병률 통계에 따르면 성인의 54.5%는 복부 비만으로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
 - 말레이시아의 과체중·비만 유병률은 2011부터 2023년까지 10%가량 상승
 - 콜레스테롤·고혈압·당뇨병 환자 다수
 - 국가 건강 및 질병 발병률 조사에 따르면 약 760만 명에 해당하는 말레이시아 성인 인구의 33.3%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성인 인구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9.3%는 고혈압 환자이며, 성인 인구 6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는 것으로 집계
- 높은 사회적 비용 유발하는 설탕 소비
 - 당뇨병의 사회적 비용
 - 말레이시아는 당뇨병, 만성 신장 질환 등 합병증 치료비로 연간 30억 링깃(한화 약 9,528억 원)을 지출
 - 비만의 사회적 비용
 - 세계 비만 연맹(World Obesity Federation)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비만으로 약 56억 8,000만 달러(약 7조 8,741억 원)를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
 - 이 중 86.3%는 비만으로 인한 조기 사망과 생산성 감소 등 간접 비용에서 발생
 - 설탕 가격 통제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 설탕은 2011년 물가 통제 및 가격 인상 방지법(Price Control Anti-Profiteering Act 2011)에 따른 가격 통제 대상으로, 정부는 매년 설탕 가격 통제 보조금으로 6억 링깃(약 1,900억)을 지출

- 설탕세로 거둔 세금 중 일부를 설탕 보조금으로 지급해 설탕 가격 통제 정책은 국민 건강 증진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건 서비스 자원을 분산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설탕과의 전쟁(War on Sugar)’ 정책 선언
 - 비만 및 당뇨 합병증의 원인으로 설탕 지목한 정부
 -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설탕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지난 9월부터 각종 규제책을 운영
 - 1인당 설탕 소비량을 줄여 비만, 당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목적의 정책으로 싱가포르 음료 영양 등급제(Nutri-Grade)를 반영해 ‘설탕과의 전쟁’을 운영하겠다고 발표
 - 다양한 시민 활동과 설탕 소비를 줄이는 캠페인 운영
- 싱가포르의 음료 영양 등급제(Nutri-Grade)
 - 싱가포르 정부는 소비자가 설탕 섭취를 피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음료를 설탕 함유량에 따라 분류 및 관리
 - 음료 영양 등급제는 가당 음료와 매장 제조 음료의 설탕 함유량에 따라 A~D 등급을 부여, 의무적으로 제품에 표기하도록 함
 - C, D 등급 음료는 제품 전면에 등급을 표기해야 하며 D 등급 음료는 광고가 제한

정책 내용

- ‘설탕과의 전쟁’을 통한 다양한 시민 활동
 - 설탕과의 전쟁 전시회, 저당 제품을 쇼핑하는 슈퍼마켓 투어, 저당 제품을 판매하는 푸드코트 운영
 - ‘설탕: 한 스푼이면 충분해요’ 캠페인 운영
 - 커피와 차 등 음료에 설탕을 넣어 마시는 소비 습관을 바꾸고자 ‘설탕: 한 스푼이면 충분해요, 덜 넣으면 좋고 안 넣는 것이 가장 좋아요(Sugar: One teaspoon is enough, less is better, none is the best)’ 태그라인을 식음료업체에 배치
- 설탕세 인상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5년 1월부터 기존 설탕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
 - 2024년에 리터당 40센(약 125원)에서 50센(약 157원)으로 인상한 것에 이어 2025년 1월부터는 40센을 추가 부과해 총 90센의 설탕세를 징수할 예정
- 설탕을 가격 통제 물품에서 제외
 - 2025년부터 설탕을 가격 통제 물품에서 제외하는 방안 논의

- 정부는 2013년 설탕 보조금 정책을 폐지했으나 생필품인 설탕 가격을 통제하고자 2023년 4분기부터 말레이시아의 설탕 생산업체 두 곳에 보조금 지급. 그러나 설탕세 세수 수입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라흐마 세일 프로그램(Rahmah Sale Program)에서 설탕 제외
 - 2024년 10월 1일부터 당을 함유한 식음료는 라흐마 세일 프로그램에서 제외
 - 라흐마 세일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내국거래·생활물가관리부(KPDN)가 2023년 12월 발표한 물가상승대응 정책 파용 라흐마(Payung Rahmah)의 일환으로 생활 필수 품목에 10~30%의 할인을 적용
- 설탕 소비 감소 유도
 - 건강한 선택(Healthy Choice) 캠페인
 -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2024년 7월 저당 제품에 '건강한 선택'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발표
 - 소비자가 건강한 제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저당 제품 개발을 유도
 - 정부, 공공기관 가당 음료 소비 감소 방침
 - 정부 행사 시 제공되는 음료의 설탕 함량을 50%로 줄이기로 결정
- 음료 영양 등급제 실행
 - 보건부는 싱가포르의 음료 영양 등급제를 참고해 이와 유사한 정책 도입을 검토
 - 식음료 제품의 설탕 함유량에 따라 A~C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관리 및 규제책을 마련할 예정

정책 기대 효과

- 국민건강증진
 - 비만과 당뇨병에 대한 국민 의식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증진을 기대
 - 2023년 말레이시아 국가 건강 및 질병 발병률 조사에 따르면 당뇨병은 주요 사망 원인
- 세수 확보, 사회적 부담 완화
 - 설탕을 가격 통제 물품에서 제외할 경우 저당 음료에 부과하는 설탕세 세수 수익을 비만 및 당뇨병 치료 지원 프로그램 등 국민건강증진 정책 예산으로 할당
 - 2023년 세계 비만 연구소에 따르면 2035년까지 말레이시아 비만 인구는 말레이시아 추정 GDP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
 - 설탕과의 전쟁 정책은 세수 확보와 비만으로 인한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그림] '설탕: 한 스푼이면 충분해요' 태그라인 캠페인

- <https://www.minimeinsights.com/2023/06/10/reversing-the-trajectory-of-obesity-among-malaysians/>
-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4/05/16/health-minister-putrajaya-to-wage-war-against-sugar-as-obesity-rates-climb-grading-system-for-sweetened-drinks-to-be-announced-soon/134731#google_vignette
-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4/09/08/in-war-against-sugar-moh-to-introduce-food-and-drink-grading-system-to-curb-ncds/149738>
-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24/09/15/start-war-on-sugar-with-children-and-youths-govt-urged/>
- <https://www.sinardaily.my/article/222559/focus/national/malaysias-war-on-sugar-taxing-sweetness-for-the-althier-future>
- <https://iku.nih.gov.my/images/nhms2023/key-findings-nhms-2023.pdf>
- <https://thesun.my/style-life/changing-the-overweight-narrative-NH8867960>
- <https://www.malaysiakini.com/announcement/722931>
- <https://data.worldobesity.org/economic-impact-new/countries/MY.pdf>
-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4/10/18/crave-a-sweet-drink-heres-how-much-will-you-can-expect-to-pay-for-sodas-and-sweet-teas-in-2025/154083>
- <https://malaysia.news.yahoo.com/live-budget-2025-anwar-heads-073000013.html>
- <https://theedgemalaysia.com/node/729269>
-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4/07/25/war-on-sugar-campaign-health-ministry-offers-healthy-choice-status-for-companies-cutting-sugar-in-products/144936>
-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4/09/11/no-more-sweet-savings-rahmah-sale-ends-discounts-on-sugary-goods-from-october-says-deputy-trade-minister/150118>
- <https://codeblue.galencentre.org/2023/03/report-41-of-malysias-adults-will-be-obese-by-2035/>

세계도시동향 제584호

발행인 오균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4년 12월 9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송도숙(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이 보고서의 내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한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